

SK케미칼, 바이오가스로 연료 대체

SBK,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통해 공급 ... 벙커C유 감축비용 2억여원

SK케미칼이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제조되는 바이오가스로 벙커C유를 대체해 주목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스웨덴 투자기업 SBK(Scandinavian Biogas Korea)는 울산 남구 용연하수처리장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고순도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5월1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SBK는 음식물쓰레기 하루 180톤을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1만3800톤을 인근 SK케미칼에 공급하고 있다.

SBK는 연간 3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SK케미칼은 연료인 벙커C유를 바이오가스로 대체해 연간 2억여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BK는 스웨덴의 세계적인 바이오가스 생산기업인 SBF(Scandinavian Biogas Fuels AB)의 한국법인으로 2007년 7월 울산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1800만달러를 투자해 음식물 전처리시설과 초음파시설, 소화조, 가스정제시설, 농축기 등을 설치했다.

한편, 울산시는 벙커C유 대체 등에 따른 이산화탄소(CO₂) 감축분 1만1500톤을 유엔의 청정개발체제(CDM)에 등록해 1억3000여만원의 수익과 함께 국제적 생태환경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5/07>